

이제는 제주평화자치도입니다 : Jeju Peace Island for  
Koreas 2018,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주도 역할”을 묻다.

(제4차 이 문명 4주기 기념 워크숍 : 이문영의 비폭력 거  
버넌스 Lee Moon Young's Non Violence Governance  
와 이제는 제주평화자치도입니다, 발표와 토론회 : 2018년  
1월 16일-1월 20일: 제주대학교 아라 컨벤션 홀 제2세미  
나실과 제주대학교 서귀포시 보목연수원에서 5일간 개최하  
다:참가자 고려대 윤성식 행정학과 교수, 전남대 이영철 행  
정학과 교수, 중앙대 김동환 행정학과 교수, 제주대 이경원  
행정학과 교수, 고창훈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일본 홋  
카이도대 구니히코 요시다 교수, 대학원 참가자 마이클 삭  
스톤 연구소 위촉연구원, 제주대 행정대학원생, 제주대 세  
계환경과 섬연구소 김덕현인턴조교 제주대 행정학과 학생,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신재용 언론홍보학과학생)

**1. 2018년 1월 16일 고려대 이문명교수(1927.1-2014.1) 4**  
주기를 맞이하여 이문명교수의 제자들 중심으로 제4회 이  
문명의 비폭력거버넌스 Lee Moon Young's Non  
Violence Governance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회는 2015  
년 4월 제주대학교 보목연수원, 제2회는 2015년 10월 전  
주문화센터, 제3회는 2016년 1월 평택대학교 인간 종교 국  
가 영문판 출판기념회에 이어 제 4회는 이문명교수의 “ 한  
반도 평화를 위한 제주도의 역할론”에 대한 구상을 논의했  
다. 왜냐하면 이문영 교수는 1999년 제주대 고창훈 교수  
에게 한반도 3개국 통일연합 United Three States of  
Korea :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eju Island  
Korea로 나아갈 수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의

이후의 남북의 지역자치를 통한 실질적인 남북 통일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실제 고교수는 이 제안을 2002년 1월 씨알의 소리와 2006년 1월 씨알의 소리에 3개국 통일연합으로 연구 발표했고 2002.4. 제주4.3컨퍼런스와 2003.4. 제주4.3 하버드 컨퍼런스에서도 발표했지만 현실에서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2. 한편 이교수는 고려대학교 윤성식교수에게 제주도 사람의 장점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고 윤성식교수는 이에 영감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상을 자신의 저서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일독을 권한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에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윤교수가 제안한 책을 읽고 그를 제주도특별자치도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그 실행을 이루게 하여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시킨다. 이 날 윤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이문명 교수가 한반도를 위한 제주도의 아시아권역에서의 특별한 역할을 주문한데 기초하여 그 연구가 이루어진 만큼, 제주도 사람들이 이문명 교수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소회를 밝혔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상을 할 때 제주도에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정부의 여러부처가 이를 완강히 저항하여 실제 목표했던 권한 부여를 이루지 못했다.

둘째 특별이라는 역할이 사실은 애매모호하여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견할만한 아시아권의 역할 이미지 정립을 이루어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늘 “제주평화자치도입니다”의 주제는 적절한 이야기인데 국제기구의 유치 운영할 수 있는

준외교권까지 갖게하는 제주평화자치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자신도 국회의장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지만, 제주평화자치도 구상이 세종 행정시와 함께 지방분권의 상징이므로 여야의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지방분권의 개헌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주요 전문가나 행정가들과 정당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이의 실행을 위해 뛰고, 지방선거에서도 이슈가 되고 6자회담국의 동의도 받아 나가는 일도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게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3.고창훈 교수는 이문영 교수의 한국의 3개국 통일연합의** 취지와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에서의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한 이후, 거기에 이르기 전에 “Jeju Peace Island for Koreaes 이제는 평화자치도입니다,”를 2017년 8월 제주대학교에서 개최한 제2회 Jeju World Peace Academy를 제주도 평화 대외 협력과의 지원으로 개최한 후 공동논의 과정에서 공동분모를 찾는다. 파리어메리컨대 더글라스 에이츠 교수가 이 내용을 세계정치학대회 신청하여 학문적인 차원에서 국제적 검토를 받자고 제안한다. 논의 결과 2017년 8월 하순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연구소의 김경호 소장과 행정학과 이경원 운영위원 교수, 파리어메리컨대학교 정부학 대학원 더글라스 에이츠 교수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창훈 석좌교수, 호주 시드니대 그란트 맥갈 교수 등이 2018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세계정치학대회 아시아 정치 세션 (GS 12 : Politics in Asia)에 제주대학교 패널 “Jeju Peace Island for Koreaes”를 신청한다.

첫째 공감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간의 갈등이 첨예한 시점인 2017년 8월에 “민간주도의 제주세계평화아카데미”를 제주대에 개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제주도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국제 논의가 있었다. 요한 갈통 교수가 2002년과 2015년의 제주방문에서 제주가 평화세우기의 전통을 구축하는 평화교육의 제도화를 말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로 보았다. 2017년 11월 제주대 총장선거에서는 제주 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와 70주기제주기념사업위원회(집행위원장 강호진)이 총장 후보들에게 제주4.3학과의 개설 등을 요청했었는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제주4.3연구에 대한 학문적 공감대와 학과 응시자의 취업 등 장래문제 등의 전망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해나가는 전제로 연구소 주도의 대학원 학과 운영 등의 방안을 점진적으로 논의하여 수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연구소와 학회 등은 제3회 Jeju World Peace Academy JWPA (2018.8.6.-8.10)를 대학생 과정과 교사연수과정으로 국제협력형이면서 지역과제 문제해결의 협력형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를 제주평화대학원 대학교 Jeju Peace University 설립의 기초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4. 전남대학교 이영철 교수는 이문영 교수의 비폭력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문영 교수는 비폭력 거버넌스의 핵심정신이 1919년의 3.1운동에서 발현되었다고 보았는데, 3-1운동을 보통사람의 정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해석했을 뿐더러 3-1운동의 뿌리로서 고대한국인, 신라의 풍류

도나 동학운동동과 조선시대의 기독교운동을 분석하였다. 보통사람들이 비폭력 거버넌스의 틀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3-1운동의 의미를 재평가하였다 ( The Roots of the March First Movement as Non-Violent Ordinary People's Search for Justice.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 Vol 7 No 1 : 2017.3.30.).

중앙대학교 김동환 교수는 빅데이터는 한국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거품이자 허구적 방법론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문영교수가 한국지식인에게 요구하는 바는 보다 솔직하고 자기반성적인 과정을 거치는 학문적 방법론을 자전적 행정학에서 논의하고 그의 비폭력 거버넌스 이론 역시 지식인의 자기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제시 하였음을 말하였다.

일본 홋카이도대의 구니히꼬 요시다 교수는 이문영 교수의 인간 종교 국가의 일어판 번역을 홋카이도 대학의 한국어 번역팀에 수행케 하여 이문영 교수의 Non Violence Governance를 일본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는 일본어 축약판을 내는 일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의견과 함께 제1부 인간 부분에서 제4장 ; 두 갈래의 길, 제2부 종교부분에서 제6장 왜 마틴 루터인가, 제3부 국가 부분에서 제8장 국민이 만든 조직을 중심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5.모리스 스트롱 전 UN 사무처장이 살아 생전에** (2015.11. 작고) 참여한 2010년 대한민국 환경부의 용역 연구에서 제주가 세계환경대학원 대학교를 국제협력형 네트워크의 대학원 대학교의 UN기구로 설립할 뿐더러 6자회담국 해양도시를 순회하는 평화섬보트 사업을 통해 6자회담국 평화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6+1 (평화자치도)의 지위를 가지면서 6자회담국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주역할론”을 현실화함으로써 평창올림픽 이후의 남북교류 체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중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에 이를 관리할 국제기구, 6자회담국 문화 +1 ( Six Party Talks Culture +1) 같은 국제기구의 설립 운영도 필요하다.

둘째 공감대는 제주대학교팀이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2018년 7월 21일에서 25일까지 열리는 제25차 세계정치학대회의 제주대학교 패널 “Jeju Peace Island for Koreas”를 신청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신청한 학자들의 주제가 “비극으로부터 평화가 왔다”, “다시 햇볕 정책을 시작할 때이다 :남북관계에서의 민간교류의 확장”, “매스 미디어와 북한 선전에 대한 언론의 역할”, “제주도에서의 평화세우기”, “남북한 경제협력의 흥망성쇠”, “누가 6자회담국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하는가” 등이다. 국제 학술 논의의 장을 활용하여 이를 정례화 할 때 이제 제주 평화자치도입니다 운동도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서 북한에 감귤보내기 운동과 마늘 보내기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는데, 이제 명칭에서 ‘특별’을 ‘평화’로 특화시켜 홍콩이나 싱가포르 처럼 물류경제교류지로서의 가능성보다는 아시아권의 평화문화의 땅으로 남북의 인적 물적 교류로 프랜차이즈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를 수용하고 실천방향을 찾아보자는 취지이다.

셋째 2018년 1월 16일 평화섬 1월 워크숍에서는 제주 지역의 밑으로부터의 평화운동 30년의 평화추구의 전통을 반영시키면서 평창 평화올림픽 남북교류의 화해를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한반도를 위한 제주의 평화섬으로서 기여

할 수 있는 논리와 프로그램의 마련을 논의한다. 제주도민들은 1988년 송악산군사기지 반대운동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를 “비무장 평화지대의 섬“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이게 현실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반성에서 비롯한다. 2005년 1월 한국정부는 세계평화의 섬을 선언하였지만 2007년 5월에는 미국의 강정해군기지의 건설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인한다. 2007년 3월 정부는 민간이 민군복합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군민복합항의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 정부는 11년간 끈질기게 반대한 강정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구상권 징벌을 내렸는데 이 제서야 이 족쇄도 풀렸다. 그런데 한국의 국토부는 성산포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고 밀어 붙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다. 동일 지역에 정석 비행장과 제2공항 등 두 개의 큰 비행장을 건설 하게 될 경우 탐라 3천년 문명을 상징하는 혼인지 같은 문화유적지 조차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으로 판단과 함께 이미 있는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놔두고 천혜의 자연환경인 성산일출봉까지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2공항을 강압적으로 밀고 있어 제주도민의 저항은 거세다. 이제 시련을 넘어 제주를 아시아의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서 발전시키는 비전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넷째 제주평화자치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기념하는 제주평화대학원 대학교 ( 또는 제주 세계환경대학원 대학교)을 국제기구로 설립 운영하는 일은 국제협력형 평화섬 기본 인프라 구축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시절에는 교육과 의료가 가장 핵심이었

다. 이제는 6자회담국 도시 순회의 평화섬 크루즈 운항과 추자도를 국제물류항으로 개발하는 화수분 경제체제를 확립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만하다. 강정에 UNESCO 유산관리의 아시아국립공원연맹 창립할 때 세계환경대학원 대학교의 연계 설립이 이루어지면 더욱 바람직 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왔다. 제주도가 연안해역의 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국제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프랑스의 지중해사례의 도입도 제기한다. 장수의 섬 관광복지 모델의 평화복지 산업 육성정책과 제주도 탐동 바다 앞 관탈도 지역의 매립을 통한 간사이 국제공항형의 추진 ( 대한항공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불가하다면) 하고 성산포 제2공항의 개발은 바로 백지화해야 한다고 본다. 마을자치를 통한 6+1 6자회담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섬문화축제의 육성 등 7개 평화섬 육성 정책목표가 제시되고 논의 되었다.

**6. 평화자치도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학술적 차원의 논의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동의를 얻어 실제 헌법개정시 반영하여 아시아 평화의 섬 제주를 이미지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2017년 6월 서귀포지역의 6.10항쟁 30주년 서귀포시 토크쇼에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참석하였는데, 제주도가 평화자치도로 전환하여 한반도의 평화에 역할을 하려는 지역의 구상은 지역이 미래의 운명을 논의 결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세종시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평화자치도로의 전환은 의미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데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여당의 정치인 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의 정

치지도자들과 제주지역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는 일 역시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제주평화자치도로의 개정을 위해서는 제주도 전체인구 60만명의 1% 6,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운동의 타당성부터 확보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이를 실행할 제주도 도지사를 선출하거나 또는 이를 모든 후보들의 제1의 정책 공약으로 실현하게 하는 공감대를 확보하자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지역 현장의 동의를 받는 청원운동과 함께 “이제는 제주평화자치도입니다” 운동이 6자회담국의 동의를 받아 제주도를 남북한의 평화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의 국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때 실적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제주도가, 유럽 핀란드의 올란드 섬이 1920년 국제연맹의 협약으로 세계평화의 섬이 되었고, 중남미 코스타리카는 1949년 중립국을 선언하고 중남미 협약을 통해 평화의 섬이 되었던 평화추구의 역사를 모색해야 평화비전을 세워야 할 때라고 하였다.

**7.오늘 2018년 1월 16일-1월 20일까지 “제4차 이 문영 4주기 기념 워크숍 : 이문영의 비폭력 거버넌스 Lee Moon Young’s Non Violence Governance 와 이제는 제주평화자치도입니다”의 결론으로 제주도민 1%인 제주시민 6,000명을 목표로 “이제는 제주평화자치도입니다.” 청원서명을 받는 일을 시작한다.** 2000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친구이자 동지인 이문영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주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분권 모델로 United Three States of

Korea :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eju Island  
Korea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로 시행은 어려운 앞서 나  
간 제안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2006년 7월 시작한 제주  
특별자치도 모델은 이를 제안했던 고려대 윤성식 교수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제주도 권한 증대에 대한 반  
대로 인해 분권모델로서 상당히 미흡하여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나아가려면 준외교권까지 부여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제 제주평화자치도입니다 운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다는  
훨씬 강하고 특화된 모델로서 한국의 3개국 통일연합으로  
제주아일랜드 코리아를 준비하는 중간 단계의 제안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지지한다면 헌법에 명시하고 시행할 때라는  
것이 참여교수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시민여러분의 서명참여 바란다.

2018.1.22.

이문영교수 4주기 기념 제4회 이문영의 비폭력거버넌스:  
이제는 제주평화자치도입니다 워크숍 책임 정리자  
(사) 세계섬학회 회장 고 창 훈 제주대 명예교수